



“기자로 성장하고자 파업 참여했다”

새내기 조합원을 만나다

“파업 활력소 되겠다...박 사장 현명한 선택해야”

※ 50일만의 ‘상봉’이었다. 회사 안팎에서, 편집국 시위에서, 온라인 메신저로 마주할 때마다 서로를 안타까워했던 선배와 후배가 이제 동료 조합원으로 어깨를 걸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궁금했던 이들, 이제는 어엿한 기자로 선배들 곁에 선 새내기 조합원 4명을 만났다. 2011년 말 입사한 이들의 고생담과 고민, 박 사장과 공정보도에 대한 생각, 파업에 참여하는 각오 등을 두루 들어봤다.



사회.정리: 김호정(사회부)
기록.정리: 배영경(국제뉴스부)
대담자: 강윤승(영문경제뉴스부), 설승은(산업부), 성서호(스포츠레저부), 한종찬(사진부)

◆ 5월3일자로 파업 대오에 합류했다. 참여해 본 소감이 어떤가.



강윤승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니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 한종찬 = 집회는 취재할 때만 멀리서 지켜봤었는데 직접 참여하려니 낯설더라. 파업이 길어져서 그런지 선배들이 많이 지쳐 보였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이제 저희가 들어와 막내가 됐으니 활력소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강윤승 = 동참해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늦게 참여한 만큼 열심히 하고 싶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선배들이 느끼는 압박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니깐 이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 선배들의 빈 자리를 메우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으로 안다.

◇ 성서호 = 주 7일 근무하더라도 육체적인 피로함은 이길 만 했다. 50일 동안 가장 괴로웠던 건 정신적인 어려움이었다. 1년에 1번 볼까말까 하는 킬링 기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였다. 어쩔 수 없이 타사 기사를 보고 써야 했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학교 후배들에게도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다.

◇ 한 = 노동 강도로 보면 3월 이후로 (모두 합쳐) 4~5일 정도밖에 못 쉬었다. 하루에 13시간 정도 근무했다.

◇ 설승은 = 오전 6시30분까지 회사로 출근해 가판 보고까지 마치고 퇴근했다. 자신의 몸으로 물이 새는 제방을 막았다는 ‘네덜란드 소년’같은 기분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돌아해보면 사건팀 마와리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웃음)

◆ 파업에 참여하는 선배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성 = 선배들이 5층 편집국에 시위하러 오면 ‘이중고’를 느꼈다. 제가 맡은 일과 부장이 시킨 일이 있으니 기사를 쓰긴 써야 하는데 선배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양쪽에서 고통스러웠다. 선배들이 구호를 외치면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 한 = 회사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싶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는게 선배들한테 피해

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사에서 갈등을 많이 했다.

◇ 설 = 이중고에 공감한다. 선배들이 편집국 들 때는 파업 초창기여서 아직 나도 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선배들도 사실 함께 일하던 부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무엇이 선배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 파업에 동참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줄로 안다.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었나?



한종찬

“나도 모르게 사진을 검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자로서 성장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 강 =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과중한 업무에 선배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 1면에 이어

없었다. 설사 선배들을 만나도 선배의 의견이지 객관적인 팩트에 다가갈 기회가 없었다. 회사가 마련한 자리에서도 별 게 없었다.

◇ 한 = 처음부터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선배들이 없는 두 달 동안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검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자로서 성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 파업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성서호

“하루빨리 선배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 성 = 파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의 키워드는 ‘부끄러움’이었다. 나도 잘 모르는 운동경기, 내막도 모르면서 쓰는 박스기사에 힘들고 부끄러웠다. 하루빨리 선배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 강 = 박 사장의 리더십에 회의감을 느꼈다.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박 사장은 이미 구성원 다수의 신뢰를 잃었다. 대다수가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좌담이 진행 중이었던 3일 오후 3시10분께 2차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 파업에 참여하는 각오는?

◇ 한 = 어제 야구경기 취재 끝나고 내일부터 파업 참여한다고 타사 선배들한테 인사했더니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바로 서야 언론이 바로 선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다.”라고. 회사로 돌아와 장비 정리하는데 시원 섭섭하더라.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마음은 편안하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집에는 파업에 참여한다는 말 안 했다. 그래서 파업이라도 기존 근무시간에 맞춰 출퇴근한다. 시간이 넉넉한 만큼 파업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펼쳐보겠다.(웃음)

◇ 성 = 반대되는 이야기를 간부급 선배한테 많이 들었다. 파업에 참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 연합뉴스가 ‘찌라시’라는 오명을 쓰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받았다. 이런 인식을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 설 = 산업부에 배치받아서 국토해양부발로 4대강 자전거길·캠핑장 오픈 등의 기사를 썼다. “연

합찌라시 기자가 4대강 홍보한다”는 식의 메일을 몇 번 받았다. 언론고시생들 사이에선 연합뉴스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이 아팠다.

◇ 강 = 사회부 수습 때 노원구청 방사능 문제 관련해 현장취재를 나갔다. 현장의 한 아주머니가 “연합뉴스인 줄 알았으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연합이 더이상 객관적인 이미지가 아니구나 싶었다. 경찰 수습 초기엔 노트북에 연합뉴스 스티커가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려야 할 것 같다. 독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 지난달 23일 박 사장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현 상황에 대한 박 사장의 입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설 = 비록 수습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연합뉴스 사원으로서 사장의 입장이 궁금했다. 하지만 그 날 박사장은 “요즘 눈 건강이 좋지 않다”, “너희를 며느리·사위를 고르는 심정으로 뽑았다”라고 말했다. 파업에 관련해서는 ‘나가라고 하니깐 마음이 착잡하다’라는 말밖에 없었다. 차라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면 좋았을 뻔했다.

◇ 성 = 맞다. 차라리 이성적으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우리를 설득했다면 좋았을 거다. 하지만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망막’ ‘며느리·사위’ 얘기만 하는 걸 보며 반감이 들었다. 수습들 모아 놓고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다.

◆ 박 사장에게 한 마디한다면.

◇ 강 = 한번 선배면 영원한 선배다. 후배들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그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다.

◇ 성 = 사장이 지금까지 퇴진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서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 설 = 노조가 협상과 대화를 요청하는데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길을 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선 선배들이 있어 든든하다.

◆ 이번 파업이 끝나면 연합뉴스가 어떤 언론사로 거듭나길 바라나?



설승은

“연합뉴스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

◇ 설 = ‘바른 언론 빠른 통신’이라는 연합뉴스의 사훈에 아무도 의문을 달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 강 = 연합뉴스 기자들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게 선발된 이들도다. 이렇게 뽑힌 기자들을 믿고 각각의 양심에 따라 기사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 성 = 선후배 간의 대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대외적으로는 (타사 기자들이) 연합뉴스 기사만 ‘우라카이’ 해도 충분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보만평

김토일



“파업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같이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연합뉴스 노조 조합원들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4일 점심 직후 나른한 시간대에 진행된 강의였지만, 서관 8층에 모인 조합원 80여명의 눈동자는 초롱초롱 빛났다. 지난 강의에서 하 교수가 연합뉴스 파업 현장을 다시 찾게 된다면 파업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연합뉴스 파업이 길어지면 제가 30년간 노동자들 만나며 느낀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다고 했었죠? 이 약속을 지키기 전에 투쟁이 끝났으면 했는데…안끝났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시간 넘게 계속된 강의에서 연방 조합원들이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조기 축구 회원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산악회 회원들은 등산을 좋아한다. 하지만 싸움이

좋아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없다”면서 그만큼 조합원 개인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은 ‘노조의 숙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 승리의 제1원칙을 내놓았다. 그것은 ‘생각은 달라도 행동은 같이하라’였다.

그는 “차곡차곡 쌓인 벽돌이라도 밑에 몇 장만 빠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면서 “내부적 토론에서는 개인이 찬반 목소리를 내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누가 반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비결은 ‘책임을 나눌수록 조직은 강해진다’였다. 하 교수는 “식발식이나 단식투쟁이 화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만 투사가 되고 끝나는 파업은 의미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조합원들이 책임을 나누는 과정을 한평생을 함께

하는 부부에 비유했다. 하 교수는 “부부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사나. 고통을 서로 반반씩 나누기 때문 아니냐”면서 책임을 균등하게 나누면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다고 격려했다.

이에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수의) 책임과 희생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 교수의 말씀이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다”고 교훈을 되새겼다.

애잔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던 하 교수는 맨 앞줄에 있던 공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벌써 식발투쟁을 하신 거냐”고 물었다가 아픈 상처를 건드렸더니 황급하게 수습,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사측 여론조사 중단요구, 겁먹은 흠집내기”

조합원 150명 사장실 앞 규탄집회

4일 오전 본사 7층 사장실 앞 넓은 복도가 후끈 달아올랐다.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금까지 금요일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150여명이 복도를 빼곡하게 채웠다.

조합원들은 최근 협상은 중단한 채 강경 대응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박 사장을 향해 힘차게 규탄 구호를 외쳤다.

공병설 위원장은 “소리높여 외쳤던 우리의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회사를 위기로 내몰아 우리를 파업투쟁에 나서게 만든 건 경영진인데, 이들이 회사의 존립과 해사 행위란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 위원장은 “일시적으로는 불의가 정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전날 2차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또 사장 거취를 둘러싼 노조의 온라인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중단을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회사 측은 이미 작년에 제작국장 임명동의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는 데 찬성해 시스템 개발비용까지 공동 부담해놓고, 이제 와서 노조의 여론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려워 한 흠집내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만일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믿지 못하면서도 노조와 합의했다면 막가파식 엉터리 경영”이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4~12기 성명이 파업의 대의를 제대로 평가하고 박 사장의 중재안 거부, 사원투표 철회를 비판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그는 “파업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박정찬 사장이다.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 상황에만 집착해 파업을 풀자는 것은 정확한 상황인식이 아니다. 노조뿐 아니라 박 사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사태를 풀기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진정한 중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태를 해결하고 더욱 발전된 연합뉴스를 만들려면 조합원뿐 아니라 사원 전체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파업 키워드*

“간식”

파업 노동자는 늘 배가 고프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 채운 다음에도 돌아서면 배가 고프는 법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날,
우리가 오렌지를 먹은 이유는?>

"그날 먹은 그 오렌지,
무슨 의미였나?" (사측 모 인사)

(사장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렇게 궁금하셨나호?)

우리도 '신선식품' 먹고 싶었다구요!!
아니면 이거슨, 오렌지 혁명!?

노조 유감표명..
"앞으로는 의미가 듬뿍 담긴
간식을 준비하겠다" 책임통감.

<우리가 먹은 간식>

바나나, 우유, 오렌지, 맥머핀, 새우버거,
각종 김밥, 샌드위치, 주먹밥...
..소박한 간식에도 우리의 투쟁의지는 불타오른다.

* 먹고싶은 게 있구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의 캔커피를 기억하세요?

2월 27일(연가투쟁 첫날) 뉴스통신진흥회 앞.
"공정보도 말아먹은 박사장은 물러나라" 를 외치다
나뉘마신 뜨거운 캔커피..
이제는?? 아이스크피 원츄~~!

<이 많은 간식, 누가 준비하나요?>
'보급부장' 이용석 조합원(제작개발팀)을
소개합니다!

Q 간식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가격과 현대의 편의성, 신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Q 수량에 변동 있나요?
A 아뇨. 꾸준히 100~200인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Q 가장 신경쓰는 점은?
A 수량 맞추는 데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많이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남으면 속상합니다.
김밥 나왔는데, 점심 약속 있다고 그냥 가지 말고
김밥도 드시고 점심밥도 또 드세요.

Q 남은 김밥은 어디로 가나요?
A 정성호 사무국장이 가져갑니다. 다음날 먹겠다고..

Q 고민 중인 아이템이 있다면..
A 개인적으로 소보루빵을 고민중입니다. 괜찮을까요?
(단팥빵도 같이 해주세요!!)

Q 먹고싶은 간식 있으면 언제든지 총무부로 연락주세요!!
많이 먹으면 노조에 부담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쟁에 적극 참여하시고 양껏 드세요.

<그래도 배고픈 이, 노조 사무실로 오라>
남은 간식은 서관 6층으로 직행합니다.
못 먹어서 억울하신 분, 적게 먹어서 원통하신 분,
노조사무실로 오세요.
쿠키, 과자, 라면 가득합니다^^

"모 부장이 쾌척한 '고급 쿠키' 도 있었습니다"
* 노조 사무실에 그런 고급 쿠키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도 고급쿠키 좋아한다구요!
많은 보직부장들의 후원 바랍니다.)

<"김 기자가 없으니 컵라면이 남아돌아요.." >
(모 출입처 기자실장)

이른 새벽 나와 밤 늦게까지 출입처를 지켰던
모 기자

아침보고를 마치고 난 시각, 타사 기자들이
출근하기도 전..

기자실 한켠에 마련된 컵라면을
하나 집어듭니다.

'인스턴트 음식' 이라 푸대접을 받지만,
지난밤 숙취를 달래는 데 그만입니다.
어젯도 취재원과 밤새 달렸습니다.

"간식 그만 축내라" 고 핀잔을 주는
이도 있지만,
빈말인 거 다 압니다.

취재처에서 돌아가는 일은 물론,
간식하나까지 연합 기자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젓과 꿀' 이 흐르는
출입처 기자실이 그림습니다.. ㅠ ㅠ
박사장! 우리 어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연합뉴스 파업으로
을지로 일대 외식업계 호황>

cre8 즐거운 비명 "연합 파업 후
매출 급성장"
한 조합원 "테이크아웃하면 20% 저렴..
커피도 마시고 기부도 하는 즐거움"

모 업체 관계자 "이용에 감사..
주문 중단 아쉽겠지만, 꼭 승리하길"

“분노하라! 연합뉴스”